

[특별 기고]

내가 겪은 6.25 전쟁*

임 관 택**

목 차

- I. 프롤로그
- II. 6.25 전쟁의 발발
- III. 포로생활
- IV. 에필로그

* 이 글은 2018년 8월 21일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에서 행한 강연의 원고이다.

** 林寬澤

1928년 8월 18일 충청남도 서천에서 출생(현재 90세). 북한, 인민공화국 혁명자 유가족.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후손.

1935년 2월(8세) 모친과 함께 중국 남경(南京)에 거주, 부친은 중앙군관학교.

1937년 1월 조선으로 귀국.

1947년 군사학을 전공으로 하는 만경대 혁명자 유가족 학원 수학.

1947년 김일성대학 정치경제학부 재학 중 소련 모스크바 육군사관학교 단기훈련.

1950년 6.25 전쟁 참전.

1951~1953년 UN군 포로생활.

1954년 정전 후 포로 석방 설득 때 공산주의 민주주의라는 이념, 남도 북도 싫어 제3국(중립국)을 선택.

1956년 인도를 경유, 2월 6일 브라질에 정착(무국적).

2017년 8월 28일 대한민국 국적 회복.

현재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북미, 캐나다에 살고 있는 중립국행 포로들의 친목회 회장.

DOI URL : <http://dx.doi.org/10.17792/kcs.2018.35..301>

I . 프롤로그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인 6.25 전쟁이 발발한지 68년이 되는 해이다. 이 전쟁에 관한 연구는 술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전쟁 개전 문제는 현재까지 여전히 최대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조선의용군은 6.25 개전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의용군이란 존재가 없었다면 6.25 전쟁은 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만주를 석권하자 의용군의 후신 부대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침략전쟁에 참전했다. 모택동은 조선의용군 3만 명을 극비로 입북, 인민군에 편입시켰다. 그 당시 38선에 10만 명을 집결시켰다. 이들의 참전으로 인해 인민군(육군)의 전력이 1/3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김일성이 남침전쟁의 도발을 결심하고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한국전쟁은 여러 면에서 특이한 성격의 전쟁이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50년 7월 14일에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미군에게 양도되어, 남과 북의 싸움인지, 아니면 공산권과 미국의 싸움인지 구분하기 힘든 모습이었다.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세계가 양분되어 있던 시기에 일어났던 강대국의 전형적인 대리전이었기 때문이지만 독특한 모습의 전쟁이 아닐 수 없었다. 공산 치하에서 시달리면서 남녘을 동경해 오던 많은 젊은이들이 6.25 전쟁에 동원되어 그들이 동경해 하지않았던 남녘의 젊은이가 쓴 총에 죽어가야 했던 알곳은 운명의 전쟁이기도 했다.

김일성의 무력통일의 꿈은 먼저 6.25 전쟁으로 남침을 시작하여 38선을 무너뜨리고 서울을 점령하면 한국은 북조선에 점령될 것이고, 침공으로 통일이 되면 반공의 벽은 없어지며 일본의 방어선도 저하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제2차 세계전쟁 후 6.25 전쟁으로 이어져, 서울이 인민군에 함락되고, 부산이 다음 방어선이 되어, 부산 역시 함락되면, 제주도를 반공인 독립국인 한국정부로 한다는 것이 김일성의 고안이었다. 만약 미국이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하

지 않았으면 김일성의 고안대로 되었을지도 모른다. 중국공산당이 국민당을 대만으로 쫓아내어 중국대륙을 통일했듯이, 김일성도 이승만을 제주도에 쫓아내고 통일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미국의 정세는 어떠하였을까. 미국은 북한의 행동을 살펴 보면서 100명 이상의 스파이(비밀정보원)를 북한에 파견하여 조선인 중국군대의 입북 상태와 각 사단의 편성, 사령부의 위치 등을 세세히 탐지하여 보고했다. 당시 중국은 장개석이 공산세력인 모택동에게 중국대륙을 뺏긴 상태로, 트루먼 대통령은 대만이 중공에게 공격 받아도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애치슨 국무대신은 미국의 방위선을 일본까지 후퇴시켜 한국과 대만에는 관계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김일성은 미국이 6.25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개전 6개월 후에는 미국의 전쟁 개입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음을 김일성도 깨닫게 되었다. 미국정부 내에서 트루먼 대통령에 반대하는 맥카시, 덜레스를 중심으로 한 우파 세력에 의하여 말하기를 김일성의 침공은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벌레와 같다고 하면서 북조선의 침공이 시작되자 트루먼 대통령은 즉시 미 해·공군을 한국군에 지원을 명령했다. 또 7월 7일에 UN군은 한국 파견을 결정했다.

1950년 6월 25일 남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서 참으로 끔찍한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우리 민족상 가장 치욕적이며 가장 깊은 통탄을 남긴 채 전쟁의 상흔은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비통한 역사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500만이라는 사상자를 내고 1천만 이산가족의 한의 눈물은 강물이 되어 지금도 아프게 흐르고 있다. 전쟁은 가는 곳마다 참혹하게 죽은 시체더미로 산을 이루고 강물에는 온통 붉은 핏빛만이 감돌았다. 누가 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사태를 빚어놓았던 말인가. 전쟁 도발자인 김일성과 스탈린을 증오하였다.

승리한 측도 패배한 측도 없는 상태에서 싸움을 끝내지 않고 쉬기로 한다는 휴전협정에 의해 전투가 중단되었다는 점도 이 전쟁의 특징 중 하나이다.

휴전협정에 의해 전투가 중단된 이래 65년 동안 38선은 날이 갈수록 소란스러워졌다. 38선이 지나간 산간과 능선 하천에 진지를 구축하고 대치한 쌍방은 확성기를 설치하고 아침저녁으로 선전전을 거듭하다가 급기야는 직접 충돌도 불사했다.

1948년 초부터 벌어진 소규모의 전투는 헤아릴 수도 없었고 몇 개의 소름 끼치는 충돌 사건도 있었다. 남은 북의 도발행위, 북은 남의 침략행위라고 서로 비난하지만 그 진상은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 힘이 더 강하다고 믿는 쪽에서 더 빈번히 도발했거나 대규모로 보복했을 것이었다. 북침인가, 남침인가. 전쟁 발발 후 김일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일찍부터 전쟁준비에 광분해 온 미 제국주의자들은 1950년 6월 25일 그들의 앞잡이인 이승만 괴뢰일당을 교사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개시했다, 38선 일대에 집결해있던 이승만 괴뢰군이 미국인 군사고문단의 직접 지휘하에 새벽 전 전선에 걸쳐 38 이북지역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허위 연설이다. 제2차 세계전쟁 때 나치 독일의 선전상 괴벨스는 거짓말은 클수록 효과 있고 신빙성 있어 보이며, 작을수록 효과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일성의 허위 연설이야말로 그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상대방을 먼저 치고서는 이목을 가리기 위하여 먼저 맞았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속임수이지만, 전쟁에 있어서 그런 책임 전가는 고금동서에 너무나 흔하다. 한편 남한에서는 국군이 최신키 미제 무기로 무장한 국군 9사단이 38선에 전개하고 있었다고 한다. 38선 이북 북조선 영해에 집결하여 “국군 멸공통일 준비 완료”라 하였다.

나는 인민공화국 혁명자 유가족으로 김일성을 잘 알고 있기에 김일성의 연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폭로한다. 일찍부터 침략준비에 광분해 온 공산주의 소련은 1950년 6월 25일 그들의 앞잡이 김일성 일당을 교사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개시했다. 38선 일대에 집결해있던 조선인민군은 소련 군사고문단의 직접 지휘하에 이날 새벽 전 전선에 걸쳐 38선 이남 지역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했다. 김일성은 이 모든 사실을 덮어 버리거나 인민들

에게 알리지 않고 허위 선전으로 속여 왔다. 그리고 그는 소련의 작전고문들과 짜고 무력통일하기 위하여 6월 25일 대거 남진 공격한 것이다. 조선인민군은 기습공격을 가함으로써 수일 내에 대한민국 전 지역을 용이하게 해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김일성 도당은 평화통일이란 연막을 치고 과감한 무력 통일을 획책했다. 일거에 대전, 김천, 포항 계선을 해방하고 2주일 이내에 부산, 마산, 목포 계선에 진출하여 전 남조선을 점령하려는 계획이었다. 나는 이때 6사단에 속하여 문산, 파주를 해방하고 김포비행장으로 육박케 하고 봉일천에서 일산으로 향하여 진격했다.

대한민국은 일제 36년간 식민지 통치하에서 신음하다가 항일투쟁을 하신 무수한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1945년 독립을 맞이했으나, 불과 5년 후 1950년 북한군의 남침으로 민족 골육상쟁의 처참한 6.25 전쟁을 당하였으니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자라나는 세대들은 6.25 전쟁을 잘 모르고 흔히 나이 많은 어른들이 그 당시 춥고 배고프고 사느냐 죽느냐 하며 피난가던 비참한 사연을 이야기하면 딴 나라 딴 세상들의 이야기처럼 들리는가 보다. 그러나 6.25를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전쟁의 참상, 비인간성, 부정의 등을 폭로하고 호소하는 목적은 전쟁을 모르는 새 세대와 이데올로기 속에 이상과 광명을 찾고자 하는 진지한 학생 젊은이들에게 6.25 전쟁에 대한 진상을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들은 대로 겪은 것을 이야기하겠다.

II. 6.25 전쟁의 발발

6월 25일 새벽 4시에 전쟁은 시작되었다. 공격을 개시하라는 군단장의 명령이 내리자 준비 포격 신호가 올라갔다. 군단 직속 포병대 및 사단 포병대가 38선 국군 진지를 부수기 위하여 일제히 포문을 열자, 전차부대가 발진 준비를 하고 위장한 보병도 공격 개시했다. 붉은 기를 단 수백 대의 검은

탱크가 산개 대형 또는 종결 대형으로 38선을 향하여 돌진하여 국군 진지를 압도하거나 파괴하고 지나면, 그 뒤를 따라 보병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총진격했다.

탱크가 38선의 철망을 부수면서 전진하는 뒤를 따라가던 나는 잡초 속에 기울어진 말뚝을 부여잡았다. 감개가 무량하고 만감이 교차했다. 3천만 눈물의 38선! 비극의 남북 경계선! 수백만 생명을 앗아간 죽음의 국경! 38선은 방금 무너졌다. 아니 만세 소리와 포성으로 무너뜨려진 것이다.

오늘은 운명의 6월 25일, 아니, 남반부와 북반부가 뭉쳐 하나로 된 날이다. 이 뜻 깊고 기쁜 날 대지는 목욕한 듯 더 선명하고 하늘은 더 높고 말쑥하네! 나는 오늘 38선 넘었다! 5개 성상 분단과 이산의 슬픔을 가져다준 38선. 형제간에 총질하던 그 비극의 38선을 나는 넘었어! 통쾌한 나머지 춤출 지경이야! 그야말로 나의 인생 중 제일 길고 제일 기쁜 날이었다.

선실아, 나는 오늘 38선의 말뚝을 잡고 감개무량하여 웃고 또 울었어!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 38선을 넘다 살인귀들에게 너는 죽고 나는 살아남았지! 그 많은 눈물을 짜낸 38선이 지금 막 무너지고 그 많은 비극을 자아낸 경계선이 만세 소리와 포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어. 필경 조국은 하나야! 자색 야생 나팔꽃과 황금색의 들국화는 골고루 남북에 피어있고 무수한 제비가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자유로 날아다니네! 아, 그래 여기서도 뺨뽕새가 지나가는 손님을 부르고 있어!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경에 나는 서울 시내에 들어갔다. 그 당시 서울시 방위사단이었던 국군 6사단과 5사단은 밀려들어오는 인민군을 저지 못하여 전투하지 않고 후퇴하였다. 국군만 믿고 있던 서울 시민은 북조선 군대가 문 밖에 도달한 것도 모르고 깊은 잠 속에 있었다. 탱크부대는 육군본부 서대문형무소 마포 감옥의 수천 명의 죄수를 석방했다. 서울의 피난민은 길을 메우고 패잔병과 부상병은 조직 없이 뿔뿔이 후퇴했다. 서빙고 육군형무소에는 남로당 간부였던 이주하, 김삼룡이 감금되어 있었는데, 가보니 후퇴하면서 총살하고 그 외에 많은 죄수들을 총살하여 가는 방마다 피바다였다.

원수는 복수로 갚고 복수는 또 원수를 만든다. 피는 피를 부르기 마련이다. 인민군 내무성 부대는 38선 개성에서 3,000여 명의 포로를 북으로 끌고 가면서 장교, 헌병, 경찰을 죽였다고 한다.

인민군의 침공 개시 3일 후, 서울을 점령하여 3일간 머물며 축송회를 하고 반동 숙청에 열중했다. 김일성은 인민군이 남진하면 남조선 로동당원 20만여 명이 호응하며 쫓아갈 것이라 생각했으나 반대로 다들 도망갔다고 한다. 인민군이 개전한 후 90일 동안 점령지역의 피해자는 서울을 포함하여 투옥자 수는 30만여 명 이상, 살해당한 자 중 신원이 판명된 자만 16만 5천여 명, 강제 연행이 12만 3천 명이었다고 한다. 의용군에 끌려가 전선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의 수는 10만여 명이다. 8월경에 들어가면서 인민군은 한국군과 미군을 남으로, 남으로 추격, 진격했다. 식량 보급이 절단되어 시민의 집에 들어가 식량을 뺏어가기도 했다.

6월 28일 새벽 한남동 앞 한강 강변에서는 비극이 벌어졌다. 해가 혼자 동빙고 한남동 강변 일대에 도강하려는 사람이 운집했다. 피난민이라고 하기 보다 건너가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다. 이때 강변에 도달한 인민군은 도강을 정지시키려고 기관총을 모래밭에 장치하고 수평사격을 퍼부었다. 각종 부물을 이용하여 건너가던 사람들은 총에 맞아 한강은 피바다의 암흑세계로 변했다. 북한 내무성 군대는 형무소에서 나온 좌익분자들의 협력을 얻어 패잔병, 숨은 군인, 경찰을 색출하여 한강 강변에 끌고 나가 총살했다. 시민들은 이방인 같은 인민군이 곳곳에서 저지른 끔찍한 만행에 소름이 끼쳤다. 유가족들은 눈물과 비탄에 쌓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허위 날조의 연설을 했다. 서울의 시민들은 해방의 기쁨을 안고 오매에도 그리던 민족의 태양이시여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 장군의 따사로운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김일성 장군 만세! 서울 해방 만세!! 거짓말 연설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전투를 계속하여 최후의 목적지인 부산을 향했다. 중국 내전과 항일 전쟁에서 싸웠던 조선의용군 출신의 방호산(方虎山) 사단장이 지휘하는 제6

사단 병력(1만 명)과 나의 88독립여단 병력 3,500명(80%가 중국에서 입북한 의용군)이 38선을 넘어 개성전투에서 시작하여 대전전투를 거쳐 충청남도 남부 일대를 휘몰아쳤으며 푸른 서해안 일대와 넓은 호남 지역을 담당하며 천 리 평야를 휩쓸고 이남 5도를 해방했다. 광주에서 목포, 보성, 순천을 순식간에 해방시킨 후, 제6사단과 함께 하동을 향하여 진격했다. 그러나 7월 26일부터 치열한 전초전이 벌어졌다. 그리하여 7월 27일에 국군 1개 대대와 격전한 끝에 승리했다. 벌써 8월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일주일이면 끝난다는 전쟁은 만 1개월이 지나도 격전이 계속될 뿐이었다. 8.15까지 해방을 외친 구호도 허공에서 사라졌다.

미 8군단 사령관인 워커 중장은 6사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병력 2만 5천 명을 투입했다. 8월 5일경 영산전투를 하기 위해서 4사단과 낙동강을 건넜다. 나는 오창동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밤 3시경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낙동강 도하는 실패하여 1,500명을 잃었다. 생존자는 11명이었다. 그 중 나도 포함되었다.

미군이 후퇴하면서 피난민을 무력으로 제지했다. 8월 4, 5일 경이었다. 오산, 대전전투에서 패배하여 왜관 일대를 수비하던 미군이 후퇴할 때, 미 제1기갑사단장 케이 소장은 수만 명의 피난민이 따라붙어 작전을 방해하거나 게릴라 침투를 받을까 두려워 이들을 무력으로 제지했다. 어린애, 여자, 노인을 막론하고 무참하게 죽였다. 후퇴하는 미군을 추격하며 전진하다 보니 수천 명의 피난민의 시체가 산판에 깔려있었다. 어린애를 업고 죽은 어머니의 등에 어린애만 살아 울고 있었다. 내가 어린애 옆으로 다가가니, 울던 아이가 손을 들며 안아달라고 하였다, 내가 어머니의 등에서 어린애를 꺼내 안아주었다. 울던 애가 그치고 손으로 내 얼굴을 자꾸 만졌다. 물을 줌 주고 난 후, 전진하기 위해 다시 아이를 어머니의 등에 놓으면서 너도 어머니와 같이 죽어라하고 떠나면서 나도 눈물을 흘렸다.

8월 6일 영산을 향하여 총공격을 개시했다. 우리는 용진분투했으나 8월 15일에 이르러 보급이 완전히 단절되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전투를 수행해야만 했다. 전후좌우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와 시체무덤, 그것이 곧 영산전투였다. 같이 전투하던 제4단은 4천 명이 죽었으며, 이것으로 우리 6사단의 진해, 부산을 해방시키겠다는 꿈은 영원히 사라졌다. 6사단은 5차 총공세의 마지막 단계에서 2명의 연대장, 3명의 대대장, 내 여단 1명의 대대장을 한꺼번에 잃었다. 한때 우리 6사단과 호남 전역과 남해안을 거의 석권했던 강군 6사단과 88독립여단도 강력한 미 공군과 탱크 및 중포에 저지되며 속수무책이었다. 우리들은 남은 병력을 가지고 낙동강 서안으로 후퇴하였다. 6.25 전쟁 이래 5차 진공이 실패할 때까지 인민군 사상자 수는 약 50만 명이었다. 특히 보충할 수 없는 지휘관들이 소대장 90%, 중대장 80%, 대대장 70%, 연대장 60%였다. 이병호 3사단, 이권무 4사단, 방호산 6사단. 이외에 전부 교체 또는 파면, 사망, 숙청되었다.

Ⅲ. 포로생활

1950년 9월 15일 미군 10군단의 인천상륙작전이 전격적으로 펼쳐졌다. 인민군 진영은 치명타를 입고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 비슷한 시기에 나는 여주 남한강을 건너 야산 화용산(여주)에서 300명 전사와 UN군에 포위당해 포로가 되었다.

용초도 66 인민군 장교수용소에서 포로생활을 시작하였다. 북한으로 귀국하는 것이 싫어서 1953년 5월에 탈출하였다. 부산 거제리 제2수용소로 이동하였다. 1953년 6월 17~19일 밤 국군 헌병이 수용소에 들어와 빨리 탈출하라고 하기에 철망을 넘어 탈출하는데 미군 경비대가 기총사격을 하여 채수감된 사람도 있고 총격에 사망하거나 부상된 사람도 있었다. 당시 수감자는 876명, 사망자 44명, 중상자 79명, 그리고 경상자 80명이었다.

포로수용소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첫날부터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해야만 했다. 온갖 형태의 기함과 무자비한 폭력이 나를 향하여 날아왔다.

그것도 평화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국군무장대에 의해서. 그들은 사람의 살가죽이 벗겨지도록 때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별별 고문기를 다 동원해 나를 못살게 굴었다. 특히 10월 1일 국방군이 이남 전역을 수복하고 38선을 넘어 북한을 개시한 날 국군 헌병들은 반미치광이가 되어 나를 죽도록 두들겨댔다. 수용소 안은 온통 우리들의 비명소리와 헌병들의 악악거리는 소리만이 메아리쳤다. 맞아도, 맞아도 끝이 없는 매일 증오 그리고 몸서리치는 멸시의 순간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어 더 이상의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이것이, 여기가 진짜 대한민국인가? 이런 곳을 나는 북한보다는 자유의 땅이라고 믿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38선을 넘은 국방군은 과족지세로 북진에 북진을 거듭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민들에게 향해 다음과 같이 고시했다. “우리 국군은 북한 국민들의 수호자이다. 우리 국군은 평화의 사도이다. 우리 국군은 민주주의 국군이다. 우리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대이다.” 어디서 많이 본 구호들이다. 그렇다. 우리 인민군들도 남침할 때 똑같이 이렇게 외쳤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던가? 무수한 백성들을 반동이나 반혁명분자로 몰아 학살하지 않았던가? 시대가 바뀌자 이번에는 평화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국방군이 광란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빨갱이의 씨를 말리겠다며 그들은 총칼을 앞서서 무고한 북한 백성들을 사정없이 짓밟고 지나갔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네바협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17만 전체 포로 모두를 남한에 탈출시키려는 계획이었다. 휴전이 성립되었을 때 전쟁포로는 본국으로 송환해야한다는 제네바협정의 개념을 바꾼 것도 한국전쟁이다.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반공포로들에게 남한에 정착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희망자들에게는 제3국을 선택하는 길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난 지 1년 남짓 경과한 1951년 7월 10일부터 휴전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때 시작된 협상이 1953년 7월 27일까지 2년 17일간이라는 세계역사상 유례없이 오래 끌게 된 원인이 바로 포로송환문제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점도 이 전쟁의 별난 성격을 말해주는 단면이다.

그 당시 모든 포로수용소 내의 환경은 다음과 같았다.

- 1) 본국 송환을 원하는 포로들(북한에 귀국)
- 2) 본국 송환을 거부하고 남한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포로(반공포로)
- 3) 북도 남도 싫어 제3국(중립국)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포로들

포로가 된 병사들의 신분을 본다면 대다수가 17세, 18세의 소년들로 전쟁에 끌려 나올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면서 떠난 전사들이었다. 다행히도 비참한 전쟁에서 살아남아 포로가 되어 3년여 동안 억류되면서, 휴전이 성립되어 포로교환이 되면 고향에 돌아가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의 꿈과 희망 속에서 하루하루 포로생활을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에 의하여 무조건 전 포로들을 남한에 탈출시키기 시작했다.

포로 탈출은 휴전협정이 조인되기 38일 전인 6월 17일 밤 11시부터 시작되었다. 부산 가야 제9수용소 탈출 일화는 이렇다. 한국군 헌병 10명이 미군 보초병 2명을 총으로 위협, 영창에 감금하고 2명의 미군 보초가 반항하자 물탱크에 밀어 넣고는 전화선을 절단하고 헌병들이 수용소 안에 들어와 잠자고 있던 포로들을 강제로 깨워 탈출하지 않으려는 포로를 총칼로 찌르면서 탈출시킨 게 3,800명이었다.

석방이 탈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내가 있던 수용소에서 1,800명이 있었는데 헌병들이 들어와 우리들을 탈출시키려고 보초병을 감금하고 포로들을 철망 밖으로 쫓아내었다. 할 수 없이 나도 도망하는데 미군들이 알고 도망하는 포로들에게 기총사격을 했다. 많은 포로들이 죽고 부상당하고, 재수감당했다. 거기에 나도 다행히 재수감되었다. 전국 7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반공포로는 모두 35,695명이었는데 이때 석방된 인원은 27,388명으로 8,240명이 석방되지 못했거나 재수감된 것으로 되어있다.

미국이 포로 문제에 무능했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무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국방군의 포로에 대한 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록 적대관계이긴 하나 국방군과 인민군은 엄연히 피를 나눈 동족이 아니던가. 게다가 포로라 하면 완전히 무장 해제된 힘없는 존재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주 위험한 맹수 다루듯 사슬과 채찍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더불어 한국 정부의 빨갱이에 대한 콤플렉스는 지극히 감정적이었으며 이는 바로 무지의 소치로밖에 여길 수 없다.

또 이승만 정부는 동족에 대한 연민의 정을 운운하며 체면치레에 급급하지만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포로들은 더욱 불안해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나마 수용소의 울타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전시켜주는 마지막 안전장치였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그 울타리를 벗겨낸다는 뜻은 결국 죽으라는 뜻이리라. 실상 석방되고 난 이후 보복을 받아 목숨을 잃은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솔직히 말해서 난 석방되는 것도 싫었다.

가끔 헌병 장교들과 만나면 농담으로 “북한군 장교가 한국에 나가면 만약 군무에 복무한다면 계급 그대로 준다”고 하니 사실인가 하고 물으면, “거짓말이야” 빨갱이 장교가 석방되면 저 지리산 산 끝에 끌고 가서 감자나 심고, 돼지나 기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땅에 몸을 붙이고 살아간다는 사실에 불안하고 있었다. 어디든 멀리멀리 떠나고 싶었다. 적색도 없고 백색도 없는 그런 땅에서 내 손으로 땅을 일구며 살고 싶었다.

중립국 문제가 거론되었다. 강제송환을 철폐하고 포로 각자의 의사에 따라 북으로 남으로 그리고 중립국에도 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한편 휴전회담은 지루할 정도로 별 진전이 없이 횡수만 거듭했다. 특히 포로송환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공전에 공전을 거듭했다. 그러던 중 “자유 송환” “전체 송환”을 놓고 옥신각신하던 차에 중립국 문제가 거론되었다. 강제송환을 철폐하고 포로 각자의 의사에 따라 북으로 남으로 그리고 중립국에도 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회담은 한 발짝씩 진전되어 5개국의 중립국을 선정해 이 문제를 이관하자는 때까지 발전하였다. 비록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선진 중립국에선 포로를 받아들일 수 없노라 췌기를 박고 나섰지만 그래도 나는 이념의 갈등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사실에 무척 고무되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지난 6년 동안 이놈의 갈등에 신물을 느낀 많은 포로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였다. 나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회담의 추이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틈만 나면 주위 동료들과 지구 반대편에 있을 미지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중립국에 대한 얘기는 끝이 없었다. 중립국! 나의 마지막 희망인 중립국! 비록 가난한 나라일지라도 열심히 일하며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중립국. 그래, 중립국으로 가자. 이 저주스런 땅을 훌훌 떨쳐버리고 희망이 깃든 미지의 세계중립국으로 가자!

그런데 갑자기 수용소 내에서 중립국에 대한 함구령이 떨어졌다. 그리고 휴전회담 석상에서 공산 측이 다시 전원 대 전원 교환을 고집하고 나섰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38선을 쳐부수어 통일하자는 희망과 꿈을 가슴에 품고 UN군과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낙동강 전투에서는 나의 금싸라기와 같은 전사 1,500명을 사상시키면서 남으로, 남으로 진격하였으나, 8월 6일 영산 전투로 이 꿈은 영원히 사라졌다. 결국 패전하여 총대를 거꾸로 메고 다시 온 길을 힘없이 후퇴해야만 하였다.

그때 UN군과 한국군이 10월 9일 38선을 돌파하며 북진하였다. 10월 10일 경에는 중국 국경선 근처까지 접근했다. 10월 19일 평양이 함락되었다. 나는 좌우간에 통일이 되는구나 하고 기뻐다. 10월 24일 남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다고 하여 북 인민들 30만여 명이 김일성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며 이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이 비겁한 UN군과 한국군은 총 한 자루, 수류탄 한 개를 가진 중공군한테 쫓겨 다시 38선을 넘어왔다. 잡초 속에 쓰러져있는 38선의 기둥은 또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왜 통일 못하고 중국인들에게 쫓겨서 도망쳐야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남도 북도 싫어 제3국(중립국)을 선택하여 38선이 없는 나라에 살고 싶었다.

뒤에 놓인 조국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고 힐난을 퍼붓기도 하였다. 둘 다 옳은 소리다. 부끄러워했던 세월도 있었으나, 광막한 황무지에서 이뤄낸

나름대로의 보람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의외로 담담하다. 이제 그 부끄러움은 부끄러움으로, 보람은 보람으로 내 역사 속에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중립국을 택했던 나의 선택이 잘 됐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지금이라도 65여 년의 세월을 되돌려 놓을 수만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중립국에서의 65여 년간 세월은 고독과 절망으로 뒤엉킨 눈물 많은 가시밭길이었다. 나는 결코 형극의 세월을 찾아다니며 보람을 일궈낼 만큼 대단한 인물이 못 된다. 그저 남들처럼 따뜻한 피붙이가 그림고 이 한 몸 편히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보통의 노인일 뿐이다. 하지만 이런 바람조차도 내겐 실현 가능성이 요원한 헛된 희망사항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오늘도 나는 붉게 물든 노을을 타고 저 넓은 지평선을 넘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다 화려한 노을빛에 비해 어둠이 예정된 석양의 몸짓은 실로 애처로울 만큼 스산하다. 어쩌면 인생의 막바지를 내닫고 있는 나의 삶도 저와 같으리라. 다만 마지막 바람이 있다면 내 속에 한으로 뭉쳐진 응어리를 한바탕 큰 웃음으로 달래며 인생의 끝장을 장식하고 싶다. 저 노을 속에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대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석양의 웃음처럼. 다만 나의 부끄러움을 빗뚫으로써 후세사람들의 삶에 조그만 밑알이 되고자 하는 마음뿐이다.

사전을 들춰보면, 중립이란 어느 한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다란 뜻이고, 중립국이란 교전국 쌍방에 모두 원조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나라를 말한다. 그리고 중립주의는 위와 같은 중립의 뜻을 외교노선의 기본 입장으로 삼아 항상 중립적 원칙을 견지하려는 이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만 놓고 보자면 한반도와 같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항상 불안과 고초를 겪는 나라에게는 참으로 이상적인 노선이다. 그러나 현대 세계사를 놓고 볼 때 진정한 중립의 의미에 걸맞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존속할 수 있었던가.

미소를 정점으로 한 좌우의 제국주의적 횡포는 지구의 평화를 한시라도

놔두질 않았다. 특히 그들의 팽창주의에 의해 축받이 되었거나 아직도 피를 흘리고 있는 수많은 약소국가들의 운명은 ‘중립’도 역시 힘의 논리에 의해 규정받을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북에는 소련이, 남에는 미국이 각기 자기의 영역임을 주장하며 허리를 잘라버린 한반도, 아직도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분단의 고통을 감수하며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우리의 조국. 물론 이 땅에도 ‘중립’이니 ‘제3세력’이란 말은 있었다. 그러나 미국, 소련을 등에 업은 독재정권은 흑백논리에 의한 전횡을 통해 그들의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북쪽에선 중립이 곧 “반동”을 의미하였다. 반면 남쪽은 남쪽대로 “중립”을 외치면 당장에 빨갱이로 몰리기 일쑤였다. 사회에 대한 비판도 제3의 길에 대한 고민과 노력도 모두 반동과 빨갱이란 수갑을 차고 차디찬 동토의 땅에 묻혀야만 했던 것이다.

IV. 에필로그

중립국 인도에의 생활은 이렇게 끝이 났다. 더불어 내 나이 20대의 전사(前史)도 이것으로 막을 내렸다. 2월 6일 우리가 브라질에 도착한 그날은 2년 전 아스투리아스(Asturias)호에 올라타 인천항을 떠난 바로 그날이었다. 한두 달이면 해결되리라고 여겼던 우리의 거취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만 24개월이 나 걸린 셈이다.

이후 브라질에서의 생활은 그 나름대로 뼈를 깎는 아픔과 방황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점은 타국에서 제아무리 푸짐한 진수성찬을 맛본다 해도 같은 동포의 품에서 들이키는 고춧가루 친 콩나물국 맛보다 못하다는 사실이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까마득하기만 하다. 이념의 갈등이 빚어낸 처절한 전쟁, 빗발치는 총탄 뚫고 자유를 찾아 헤매던 영혼들, 민족에 대한 원망과 살기 위한 발버둥, 이유 없이 채워진 수갑, 억압의 나날들, 그리고 덧없이 흘러 들어간 인도란 나라.

모두가 꿈만 같다. 내가 온몸으로 맞서야 했던 현실이라고 보기엔 내 의지와 무관한 사실들이 너무 많다. 그렇다. 어찌면 인간의 삶 속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란 차원보다는 ‘할 수밖에 없다’란 차원이 더 많이 녹여져 있는지 모른다. 그러기에 나에게 물었던 “왜 중립국을 택했는가?”란 질문은 이렇게 고쳐져야 할 것이다. “왜 중립국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피붙이에 대한 그리움, 이는 내 반평생의 세월을 지겹게 쫓아다녔던 삶의 그늘이었다. 나의 고통이 아무리 지난하다 한들 북녘 땅에 두고 온 내 어머니의 마음만 하랴. 지금은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불효 중에 또 이런 불효가 어디 있겠는가. 뿐만 아니다. 인도를 떠나던 날 눈물로 아리랑을 불러주던 내 친구들의 소식도 접할 길이 없다.

어찌 그날의 만남이 우리들의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으랴. 보고 싶은 얼굴들이 너무 많다. 오늘도 빛바랜 사진첩을 들춘다. 거기에 미치도록 보고픈 얼굴들이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눈물이 흐른다. 미망의 세월 속에 쌓인 그리움이 눈물이 되어 흐른다. 한 잔의 파리한 술에 이 머물 수 있는 그리움을 타서 마실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1956. 2. 10. Sao Paulo, Brazil

임관택

고금동서 전쟁포로 이야기는 너무나 많다. 포로들 자신이 쓴 글도 있고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도 많다. 기록적인 것도 있고 설화적인 것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썼든 간에 수치와 불결로밖에 정의내릴 수 없는 누추한 이야기 뿐이었다. 특히 청사에 유례가 없는 6.25 동족상잔에서 배어난 전쟁포로의 실상은 전쟁이 중단된 지 68년이 되어도 수치와 멸시 그리고 배척 등 냉랭하게만 남아있다. 특히 인간 가치를 그 인간의 품성 인격 덕망에 두지 않고 그 인간의 사상 충성도 그리고 재물에 두는 우리나라의 도덕관으로서의 남이든 북이든 전쟁포로에 대한 평가는 준엄하기만 하다.

의를 존경하는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근대사상 전에 있어서 우리 국민은 너그럽지 못했으며 예의지국민도 아니었다. 가령 포로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불결하다고 보기 때문에 남에서는 믿지 못할 인간 불충한 인간으로 보고 북에서는 한층 더 준엄하게 반역자 투항분자 귀순자로 본다. 그리고 또 숙청의 대상자 조국이 둘이라면 충성도 두 가지로 해석되겠지만 포로에게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았으며 설 자리도 주지 않았다. 남을 위하여 월남했다 한들 이해는 찾을 수 없으며 북을 위하여 월북했다 해도 마찬가지다. 남에 있던 북에 있던 일단 전쟁포로로 판정되면 그것이 비록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도 벌써 민족의 사랑이라든가 종교적 관용이라든가 인도적 박애 따위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가끔 한국전쟁은 불필요한 전쟁이라고 보아왔다. 쌍방의 승리라는 것은 없고 엄청난 파괴와 살인과 수십만 포로를 서로 내고도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민족 통일도 못했고 국토 통일도 못했다. 남은 것은 서로 미워하는 증오와 불신 정복욕뿐이다. 특히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를 위하여 싸웠던가조차 말할 수 없이 부끄럽기만 하다. 후에 두고두고 뉘우치는 일이지만 그런 쓸데없는 전쟁에서 포로로 된 것이 원통하기만 했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선다면”이라는 애매한 노래가 있지만, 이 몸은 죽어도 포로인가 생각하면 너무나 해학적이다.

휴전 후 나는 동족상잔을 증오하여 북한에 돌아갈 것을 거부했으며 또 남한에서도 살아갈 자신이 없어 중립국으로 갔다. 투철한 중립사상이 있어 나간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잘 살겠다는 비겁한 생각도 아니었다. 구태여 솔직한 동기를 찾는다면 평생 포로라는 누명을 벗고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싶은 것이었다. 또 한 가지 해명하고 싶은 것은 중립국에 갔다 해서 조국을 깜깜 잊어버리거나 두고 온 어머니님과 가족들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누울 곳을 찾지 못한 채 백발이 창창하여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할 것인가.

어렸을 때부터 방랑을 좋아했다. 그래서 지금도 이불 속에 들어가면 유랑

한다. 시베리아도 가서 구석구석 다니고, 인도에서도 끝에서 끝까지, 히말라야까지,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끝까지 가보고,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 속에서도 정처 없이 방황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장엄하고 따뜻함을 느끼는 곳은 대자연 아마존이 아닌가 느낀다.

2017. 12. 15. Sao Paulo, Brazil

임관택